

감사의 회복,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(시 103편)

I.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

- A.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, 성경의 감사의 한 모습을 보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. 시편 103편은 모든 시편 중 "가장 감동에 찬 시편"으로 불릴만큼 성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 (죄를 사하심, 병 고치심, 억압에서 구원하심, 언약의 말씀을 주심, 하나님의 영원하심, 하나님의 통치). 시편 기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"그의 모든 은택, 베푸심"(2절)이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다.

²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(시 103:2)

- B. [1-5절,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, 개인의 영역에서의 감사] 시 103편은 "여호와를 송축하라"라는 명령에서 시작해서 (1절), "여호와를 송축하라"라는 동일한 명령으로 끝난다 (22절). 우리는 이 시편의 "송축하라"는 명령을 "감사하라"로 바꾸며 고백할 수 있다. 시편 기자는 "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" (영, 혼, 육)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하고 다음의 고백을 한다.

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²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³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⁴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⁵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(시 103:1-5)

- C.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5가지로 자세히 나열하며 감사하고 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,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,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,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.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.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"모든" 죄와 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하고 있다.
- D. "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"는 표현은 왕관을 씌움으로 고귀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며, 우리의 영혼에게 자비와 은혜로 왕관을 씌움으로 영혼이 이를 충만히 누리게 하셨다는 의미가 된다.
- E. [6-14절,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, 공동체적 영역에서의 감사]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제 한 개인의 고백에서 "우리"에게 행하신 하나님으로 확장되어 나가며,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(하나님의 성품과 그로 인한 우리를 향한 행하심)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진다 (8절, 출 34:6; 민 14:18; 느 9:17; 욥 2:13).

웹에서는 **1page**까지만 공개됩니다